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寫經變相畫의 編年 研究

A Study on the Frontispiece Painting of Lotus Sutra
in Tokugawa Art Museum in Japan

趙秀珍(Cho, Soo-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變相畫의 樣式 |
| 2. 寫經과 版經의 現狀 | 5. 맺음말 |
| 3. 變相畫의 內容 比較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元代寫經인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寫經 變相畫의 편년 연구이다. 현존하는 중국사경의 예가 많지 않은 가운데 徳川美術館本 사경은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원문이 없어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분석을 통해 제작연대를 추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至正 6(1346)년에 제작된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판경변상화의 조사를 통해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 제작연대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와 故宮博物院本 판경변상화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向右 설법도에서 수미단의 표현이 생략된 점, 向左 설화도에서 세부묘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들 변상화가 동일한 모본을 참고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는 1330년에서 13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要語 : 묘법연화경, 사경, 판경, 변상화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외래교수(picorina1@nate.com)

접수일: 2008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20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investigated is the date of production of the frontispiece painting of 'Lotus Sutra' written in gold dust on indigo paper, and currently held in Tokugawa Art Museum in Japan. Since only few frontispiece painting produced in China exist, this particular frontispiece painting is highly valued. But without the prayer attached to this frontispiece painting, its date of production was not known, but only assumed,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style.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frontispiece painting of 'Lotus Sutra' produced in 1346 and currently hel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in Taiwan made it possible to identify the date of production of this Tokugawa edi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NPM edition and the Tokugawa edition shows that both were made on the same model, because some expressions are equally omitted from the drawing of sermon, facing right, and the subjects are completely identical on the drawing of tales, facing left, even with a little bit of differences in detail.

Based on this finding, it can be assumed that the frontispiece painting of 'Lotus Sutra' in Tokugawa Art Museum was produced between 1330 and 1350.

Key words : Lotus Sutra, Frontispiece Painting

1. 머리말

元代 제작된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이하 徳川美術館本이라고 칭함)에 관해서는 이미 山本泰一씨에 의해서 연구논문이 발표된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徳川美術館本の 제작 연대를 13세기 말기~14세기 초두 경으로 추정하였다.¹⁾

본 연구자도 이미 학위논문에서 고려사경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중국 사경의 한 예로 徳川美術館本 寫經變相畫에 대해 분석한바 있고,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元 順帝 至正 6(1346)년에 제작된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이하 故宮博物院本이라고 칭함) 版經變相畫에 대해서는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의 제작시기를 유추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소개하기도 하였다.²⁾

하지만 학위논문을 쓰던 당시에는 故宮博物院本 판경변상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단편적인 소개에 그쳤고, 2007년 운 좋게 이 판경을 조사할 기회를 얻어 본격적으로 徳川美術館本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고자 했다.³⁾

지금까지 발견된 연대 확실한 중국 장식경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 속에서 故宮博物院本 판경변상화는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의 편년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徳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 「妙法蓮華經」의 현상을 살

1) 山本泰一, “見返し繪のある中國の紺紙金字法華經-徳川美術館藏,” 『金鯨叢書』 第八輯 (徳川黎明會), 870-901.

2) 조수진,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比較 研究-東亞細亞 三國을 中心으로,” (박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112-125.

3)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版經變相畫(유물번호: 故佛 173~179)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로부터 「妙法蓮華經 圖錄」을 입수하여 자료소개를 하였다. 이후 경북대학교 최정 교수, 은사이신 대구가톨릭대학교 권희경 교수와 日本 九州大學 井手誠知輔 교수의 도움으로 2007년 1월에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元代寫經 및 版經의 체제 및 특징을 파악하고, 아울러 德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와 故宮博物院本 판경변상화의 비교분석을 통해 德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의 제작연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2. 寫經과 版經의 現狀

2.1 寫經의 現狀

德川美術館本 사경은 姚秦·鳩摩羅什이 번역한 「妙法蓮華經」을 紺紙에 金字를 사용하여 7권본 1부로 書寫한 것이다.

사경의 크기는 세로 32.8cm, 가로 10.8cm이며 折帖本을 이룬다. 變相畫의 크기는 세로 29.4cm, 가로 43.7cm이다.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7자로 寫成되어 있고 본문의 각줄 사이를 구분하는 界線은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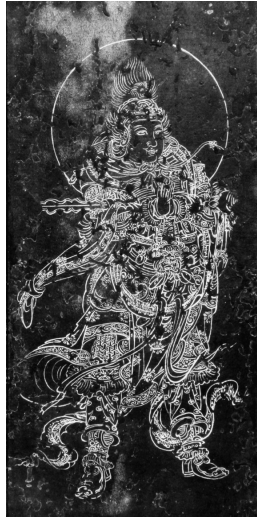
변상화는 각 권의 卷頭に 金泥로 총 4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화면의 오른쪽에는 釋迦說法圖인 靈山會上圖가 그려지고, 화면의 왼쪽에는 각 권에 해당하는 경전의 내용이 圖解되어 情景的으로 표현된 說話圖가 그려지는 형식을 보여준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금니의 太線-細線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묘사는 유려하고 정교한 필치를 사용하여 화려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1330년에 제작된 元代寫經인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

각 권의 卷尾에는 갑옷을 입고 합장한 두 손에 寶劍을 들고 있는 神將像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같은 元代寫經인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본 제7권 卷尾

4) 조수진,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研究,” 「書誌學研究」, 제37집(2007. 9), 253-285.

에 그려진 韋駄天 도상과 형상이나 지물을 든 자세 등에서 일치하여 이 신장상의 名號가 위태천임을 알 수 있게 한다.⁵⁾



<그림 1>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 제1권 卷尾畫

따라서 元代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에서는 각 권의 卷尾에 천부 도상이 그려지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 위태천 도상 또한 권두에 그려진 사경변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金泥를 사용하였는데, 세밀한 필치의 鐵線描를 이용하여 얼굴 및 신체 각부의 세부묘사뿐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옷주름까지 유려하게 표현하여 회화적인 느낌을 가중시키고 있다.

2.2 版經의 現狀

故宮博物院本 판경은 卷尾의 發願文에 의해 元 順帝 至正 丙戌(1346)년에

5) 위태천 도상에 대해서는 조수진(2007), 258 참조.

제작된 것과 함께 嘉興路에 사는 陳道榮이 간행한 것임이 밝혀졌다.

판경의 크기는 세로 38.2cm, 가로 16.8cm이며 折帖本을 이룬다. 變相畫의 크기는 세로 31.3cm, 가로 60.2cm이다.

이 판경의 체제는 1면 4행이며 1행 12자로 판각되어 있고 변란은 四周單邊이며 界線은 생략되었다.

변상화는 각 권의 卷頭에 墨刻으로 총 4면에 걸쳐 표현되어 있는데, 화면구성은 德川美術館本과 동일하다.

그러나 각 권의 권미에 갑옷을 착용한 韋馱天 도상이 등장하는 德川美術館本과는 달리 故宮博物院本에서는 위태천 도상은 찾아볼 수 없다.

3. 變相畫의 內容 比較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德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은 모두 총 4면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지는데, 화면의 오른쪽에 說法圖가 등장하고 화면의 왼쪽에 說話圖가 등장한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宋代 版經變相畫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元代寫經인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변상화와 고려사경 변상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다만 德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의 경우 이들과는 달리 向右 說法圖에 수미단의 표현이 생략되어 차이점을 보여준다.⁶⁾

向右 설법도는 2질의 변상화 모두 각 권이 같은 형식을 이루는데, 설법하는 釋迦如來를 중심으로 菩薩·弟子·四天王 등이 釋迦를 에워싸고 있고 釋尊에 對向하여 설법을 듣는 聽聞衆들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성증의 자세나 배치 등에서 각 권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向左 설화도의 내용 또한 2질의 변상화가 거의 동일하여 德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의 제작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조수진(2007), 각주 7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徳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 變相畫의 圖像과 內容을 經전과 대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제1권 變相畫

3.1.1 徳川美術館本 제1권 사경變相畫<그림 2>

먼저 向右에 그려진 說法圖를 살펴보면,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내밀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살짝 엮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文殊·普賢菩薩, 迦葉과 阿難,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고 하단에는 2명의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노인은 舍利弗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日本 徳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1권 變相畫

설법도는 「序品」에 설해져 있는 法會에서의 聽衆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것이다.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序品」 중에 부처님의 眉間에서 나오는 白毫相을 그린 것으로 광명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天蓋가 표현되어 있다.

제1면의 光明 안에는 「序品」의 내용 가운데 탑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인물과 부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인물, 석가열반상과 침상 주변에 인물과 그 뒤로는 전각이 표현되어 있다.⁷⁾ 제2면의 광명 안에는 「序品」의 내용 가운데 比丘의 수행장면과 육도중생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⁸⁾

제4면의 상단 역시 「序品」의 내용 가운데 보살행의 祥瑞를 그린 것이다. 向左의 나무아래 앉은 보살의 頭頂으로부터 나온 光明이 담장을 비추고 있는데, 담장 바깥에는 강마른 몸을 하고 있는 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樹下菩薩像 오른쪽 아래에는 「方便品」의 계송 중에 나오는 연화좌 위에 앉은 여래를 향해 절을 하고 합장을 하고 있는 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불상·불화제작과 관련된 내용과 小善成佛에 관한 내용이 지그재그로 표현되어 있다. 제4면의 중반부터는 「方便品」의 계송 중에 奏樂供養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⁹⁾ 說話圖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福德을 닦고 佛道를 완성하고 釋尊이 설법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1.2 故宮博物院本 제1권 판경변상화<그림 3>

向右 설법도에서 德川美術館本의 석가여래가 방형의 연화좌 위에 앉아 있었던 비해 여기에서는 원형의 연화좌로 바뀌었으며 대좌가 구름에 절반 이상 가려

7) 내용분석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참조.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序品, 2b.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써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8)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序品, 2b. 그 빛 아래로는 아버지욕까지 비추고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의 六道衆生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곳의 여러 비구·비구니와 우바세·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9)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方便品, 9a. 남을 시켜 풍악 울리고 북치고 소라 불고 통소와 저와 거문고와 공후와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는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成佛하였느니라.」

저 있다. 또한 사천왕 가운데 서방 광목천과 동방 지국천의 자세에서 약간의 차이 점을 보이고 있으며, 徳川美術館本과는 달리 가섭과 2명의 청문중 사이에 구름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3>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제1권 變相畫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경물의 선택 및 표현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徳川美術館本과 같은 모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4면 하단 좌측에는 이 환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2명의 공양인이 구름 속에 등장하고 있어 徳川美術館本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경변상화와는 달리 판각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인지 徳川美術館本の 복잡한 雲文으로 가득 차있는 배경처리와는 반대로 여백을 많이 남겨 오히려 시원한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3.2 제2권 변상화

3.2.1 徳川美術館本 제2권 사경변상화<그림 4>

向右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내밀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역시 가슴 앞으로 내밀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文殊·普賢菩薩, 迦葉과 阿難,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1권 釋迦說法圖와 비교할 때 增長天和 迦葉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 달라진 점이다. 하단에는 4명의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四大聲聞인 須菩提·大迦旃延·大迦葉·大目犍連인 것으로 보인다.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天蓋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4> 日本 德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2권 變相畫

向左 설화도 상단에는 제2면의 중간부분에서부터 제4면에까지 화염에 휩싸인 건물과 그 문 앞에 3대의 수레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譬喩品」 가운데 火宅의 비유장면을 묘사한 것이다.¹⁰⁾ 화택 내부에는 「譬喩品」의 계승 중 불타는 집안에

10)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2권, 譬喩品, 12b-12c.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많으나 재물이 많았느니라. 그 집이 매우 크지만 출입문은 하나뿐이고, 집과 누각은 넓았으며 담과 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모든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장자의 자제들이 그 집안에 있었지만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때 장자가 방편을 써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독충들이 들끓고 구반다 귀신이 이를 쫓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제4면의 하단에는 「譬喩品」의 계승에 나오는 경전을 비방한 罪報에 관한 내용을 묘사한 듯 몽둥이를 들고 승냥이를 쫓는 2명의 아이들이 그려져 있고 그 왼쪽 위의 초옥 앞에는 구렁이가 표현되어 있다.¹¹⁾

제3면과 제4면의 하단에는 「信解品」의 내용 가운데 부유한 長者와 窮子 아들에 관한 비유가 그려져 있다. 제3면의 하단에는 장자가 사람들을 시켜 아들을 데려오게 하자 아들이 놀라 기절한 장면을 그리고, 그 왼쪽 위에는 장자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편으로서 아들에게 가까이 간 장면을, 그 오른쪽 위에는 장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3.2.2 故宮博物院本 제2권 판경변상화<그림 5>

向右 설법도의 경우 제1면의 박락상태가 심하여 도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臺灣 國立故宮博物院에 있는 동일본¹²⁾과 비교해본 결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제1권 변상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방향의 연화좌는 원형의 연화좌로 바뀌었으며 대좌가 구름에 절반 이상 가려져 있다.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火宅의 비유장면에서 아이들이 담장 밖에 표현된 徳川美術館本과는 달리 故宮博物院本에서는 아이들이 문밖으로 향하는 장면을 그려 넣어 인물의 배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2권에서도 제4면 하단 좌측에는 이 환경의 발원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주리라'하니까 아이들이 앞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

11)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2권, 「譬喩品」, 15c. 「경전을 비방한 죄로 어떤 때는 승냥이가 되어 마을로 들어오면 몸은 헐어서 찢어지고 환눈은 애꾸가 되어 개구쟁이들의 발에 채이고 매를 맞아 갖가지 고통을 받다가 끝내는 죽게 되니라. 죽고 나서는 다시 구렁이의 몸을 받아…」

12) 臺灣 國立故宮博物院에는 1346년작 妙法蓮華經 版經變相畫 이외에도 기년작은 아니지만 동일본 2질이 있어 도상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았다.

자로 추정되는 2명의 공양인이 구름 속에 등장하고 있고, 배경을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하여 제1권 변상화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妙法蓮華經」제2권 變相畫

3.3 제3권 변상화

3.3.1 德川美術館本 제3권 사경변상화<그림 6>

向右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어깨 위로 들어 올려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迦葉과 阿難, 文殊·普賢菩薩,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1·2권 釋迦說法圖와 비교할 때 제자와 보살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 달라진 점이다. 하단에는 3명의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大迦葉과 佛弟子인 것으로 보인다.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天蓋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6>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 제3권 變相畫

向左의 설화도 상단에는 구름에 휩싸인 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藥草喩品」 가운데 藥草의 비유 장면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서 구름에 싸인 용의 입에서 비를 뿜어내는 장면은 생략되고, 대신 제3면과 제4면 중앙에 초목들이 묘사되어 있고 도롱이를 입은 2명의 인물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대각선 오른쪽 위로는 2명의 인물에게 설법을 하는 여래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藥草喩品」 가운데 차별의 비유에서 법을 밝히는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보인다.

제3면 하단에는 「授記品」 가운데 大目犍連과 須菩提·摩訶迦梅延이 부처님에게 합장하고 수기를 청하는 내용인 大王饗膳의 비유장면이 그려져 있다. 중앙에 앉아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인물은 임금이고, 그 좌우에는 시종들이 시립해 있으며, 그 앞에는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3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수기를 청한 大目犍連과 須菩提·摩訶迦梅延일 것이다.

제2면과 제3면 상단에는 「化城喩品」의 내용 가운데 구름에 싸여 공중에 떠있는 3체의 가옥이 표현되었다. 제3면과 제4면 상단에는 큰 성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성으로 향해가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역시 「化城喩品」 가운데 化城의 비유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성문 앞에는 호랑이 2마리가 그려져 있어 험악한 길을 상징하고 있으며, 성문의 다리 앞에서 막 다리를 건너려는 3명의

인물은 導師와 그를 따르는 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제4면 하단에는 스님이 法床에 앉아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는 역시 「化城喻品」 가운데 부처님의 출가 전의 아들인 16왕자가 출가하여 沙彌가 되어 범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3.3.2 故宮博物院本 제3권 판경변상화<그림 7>

向右 설법도의 경우 제2권과 마찬가지로 제1면의 박락상태가 심하여 도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臺灣 國立故宮博物院에 있는 동일본과 비교해본 결과 역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좌의 경우 德川美術館本の 대좌가 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대좌가 구름에 절반 이상 가려진 모습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제3권 變相畫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세부표현기법 등이 德川美術館本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제3권에서도 역시 제4면 하단 좌측에 이 판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2명의 공양인이 구름 속에 등장하고 있고, 배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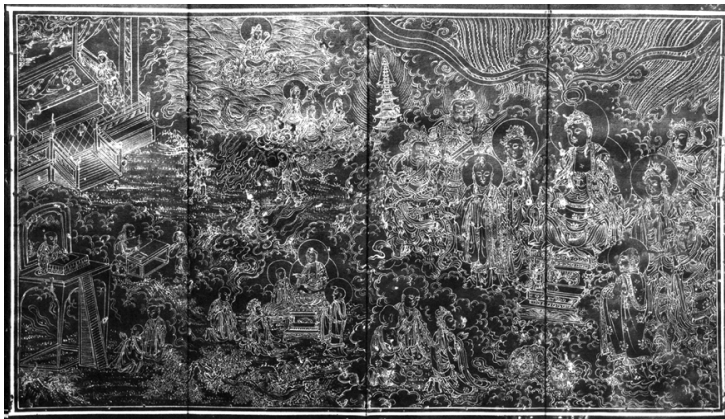
雲文이나 散花의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3.4 제4권 변상화

3.4.1 徳川美術館本 제4권 사경변상화<그림 8>

向右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무릎 위에 두고 왼손은 가슴 앞에 들어서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文殊·普賢菩薩, 迦葉과 阿難,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는데, 보현보살과 迦葉이 서있는 방향을 제외하면 제1권과 동일하다. 하단에는 보살과 비구 2명으로 구성된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석가여래가 앉은 대좌 앞에는 구름에 휩싸인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다.

向左의 설화도 상단구석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인물과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五百弟子授記品」의 내용 가운데 衣裏寶珠의 비유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日本 徳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4권 變相畫

제4면 하단에는 法床에서 설법하는 승려와 법문을 듣고 있는 청문자 2명이 묘사되고, 그 오른쪽 옆에는 經床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 俗人과 그에게 합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인물상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法師品」에 설해진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제2면과 제3면 상단에는 3구의 여래가 불탑을 향해 구름을 타고 올라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見寶塔品 의 내용이 묘사된 것이다. 이 탑은 다보여래의 사리탑으로 석가여래가 범화경을 설법하는 것을 듣기 위해 땅으로부터 솟구쳤다는 설화를 도해한 것이다. 또한 탑의 왼쪽에 등장하는 구름을 타고 있는 3구의 여래는 다보여래의 보탑을 공양하기 위해 모인 시방의 제불을 표현한 것이다. 제3면 중앙에는 見寶塔品 의 개송 중 경전의 유통을 권하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아래쪽에 마른풀을 지고 금방이라도 불로 뛰어 들 것 같은 인물과 손에 풀 같은 것을 쥐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었다.

제3면 상단에는 提婆達多品」의 내용 가운데 文殊師利菩薩이 大海의 용궁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용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제3면 하단에도 「提婆達多品 의 내용 가운데 八世龍女의 成佛 장면이 그려졌다. 즉 八世龍女가 그녀의 成佛을 믿을 수 없다는 智積菩薩과 舍利弗에게 成佛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연화좌 위에 앉은 석존에게 보주를 바치는 장면 옆에 남자로 변한 龍女가 석존에게 합장을 하고 있으며, 그 위쪽에는 成佛을 이룬 龍女가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보살행을 갖춘 모습이 시계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4권의 도상에는 「授學無學人記品」과 「勸持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경변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품 모두 설화성이 부족해서 회화화 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³⁾

3.4.2 故宮博物院本 제4권 판경변상화<그림 9>

向右 설법도에서 제1면에 부분 박락이 보이지만 臺灣 國立故宮博物院에 있는

13) 山本泰一, 885.

동일본과 비교해본 결과 역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대좌는 방향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으며 구름에 절반 이상 가려진 채 표현되었다.



<그림 9>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제4권 變相畫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경물의 세부묘사 등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徳川美術館本과 같은 모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4권에서는 제4면 하단 좌측에 이 관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2명의 공양인과 더불어 그 옆에 합장한 모습의 동자가 구름 속에 함께 등장하고 있어 前卷들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3.5 제5권 변상화

3.5.1 徳川美術館本 제5권 사경변상화<그림 10>

向右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들고 왼손은 왼쪽 무릎에 댄 채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역시 文殊·普賢菩薩, 迦葉과 阿難,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다. 하단에

는 3명의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天蓋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10> 日本 徳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5권 變相畫

제4면 상단에는 「安樂行品」 가운데 범화경의 존귀함을 설한 髻明珠의 비유장면이 그려져 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담장 밖에는 말을 대기시키고 있는 2명의 인물도 표현되어 있다. 제3면 하단에도 역시 「安樂行品」의 계송 가운데 비구의 안락행법을 설한 내용이 도해되어 있는데,¹⁵⁾ 法床에는 설법을 하는 승려가 앉아 있고 그 아래에는 합장을 하고 있는 1명의 비구와 2명의 聽聞衆이 묘사되어 있다.

제3면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5명의 보살상이 등장하고 있는

-
- 14)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安樂行品」, 39a-39b. 「어떤 힘센 전륜성왕이 전쟁을 하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상을 주는데 코끼리·말·수레와 몸을 장엄하는 도구와 좋은 저택과 전답, 마을과 도성을 주기도 하느니라. 용맹하고 날랜 군사가 훌륭한 공을 세웠으면 상투 속에 꽂아두었던 명주를 뽑아 상으로 주느니라」
- 15)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安樂行品, 38a. 「보살이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기를 즐겨하면 맑고도 깨끗한 곳에 法床을 차려놓고 몸에는香油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게 하라.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누구에게나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하라」

데, 이는 「從地涌出品」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¹⁶⁾

제3면 중앙에는 如來壽量品 의 내용 가운데 良醫의 비유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¹⁷⁾ 원형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은 양의인 듯 보이고, 옆에 시자는 약병인 것으로 보이는 목이 긴병을 들고 있으며, 양의 맞은편에 있는 2명의 인물은 양의 의 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4면의 하단에는 塔堂을 건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分別功德品」 가운데 세존이 미륵보살에게 설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기와이기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¹⁸⁾ 총 6명의 인물이 분업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3명의 인물 중 2명은 건물 아래에서 기와를 던져주는 일꾼에게 기와를 받아서 기와이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건물 아래의 일꾼이 줄에 매달아 올려 보내 주는 두레박을 끌어당기고 있으며, 건물 아래쪽에는 삼으로 흙을 퍼 올리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3.5.2 故宮博物院本 제5권 판경변상화<그림 11>

向右 설법도의 경우 역시 제1면과 제2면에 부분 박락이 관찰되지만 徳川美術館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방형의 연화좌는 원형의 연화좌로 바뀌었으며 대좌가 구름에 절반 이상 가려져 표현되었다.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등에서 거의 일치하지

16)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從地涌出品」, 39c-40c.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에 있던 千萬億의 보살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습니다」

17)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如來壽量品, 43a-43b. 「良醫가 국외에 여행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 悶苦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良藥을 주어서 본심을 잃지 않게 치료하고자 했으나, 이미 본심을 잃은 아들은 약을 먹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의는 방편으로서 일단 국외로 나가서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고하게 했을 때 본심을 다시 찾은 아들이 약을 마시고 나왔기 때문에 양의가 귀국했다」

18)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分別功德品, 45c. 「아일다여,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하면, 그것은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梅檀香 나무로써 32채의 殿堂을 짓는 것이니라」

만 良醫의 비유 장면에서 양의 앞에 방형 탁자가 놓여 있어 그냥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德川美術館本과는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제5권에서는 제4면 하단 좌측에 이 판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4명의 공양인이 등장하고 있어 역시 前卷들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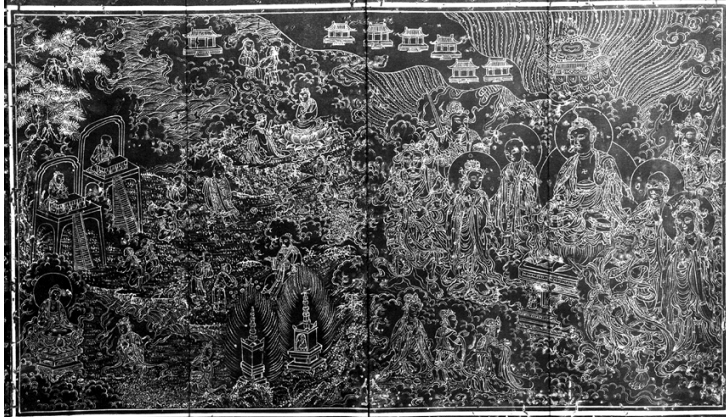
<그림 11>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妙法蓮華經」 제5권 變相畫

3.6 제6권 변상화

3.6.1 德川美術館本 제6권 사경변상화<그림 12>

向右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무릎에 대고 왼손은 중지와 약지를 구부리고 어깨에 들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迦葉과 阿難, 文殊·普賢菩薩,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다. 하단에는 3명의 보살이 聽聞衆으로 배치되었다.

여래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에는 6체의 가옥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如來神力品」에 설해진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광명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天蓋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12> 日本 徳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6권 變相畫

제4면 상단에는 「隨喜功德品」 가운데 석존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도해되어 있는데, 소나무 아래 法床 위에 앉아 설법하고 있는 승려와 속인은 여래 열반 후에 법화경을 듣고 隨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하고 있는 인물들로 보인다.

제3면 상단에는 「法師功德品」에 설해진 내용 중 2명의 인물이 구름을 타고 날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는 허공에 떠있는 궁전이 그려져 있다.¹⁹⁾

제3면 중앙에는 「常不輕菩薩品」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이 몽둥이와 돌을 든 2명의 인물에게 쫓기면서도 되돌아보며 ‘그대들은 모두 成佛할 것입니다’를 외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 위쪽으로는 藥王菩薩本事品의 내용 가운데 극락세계에서의 여인의 성불 장면을 그린 것으로,²⁰⁾ 여인이 연화좌 위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여인이 설한 이

19)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法師功德品」, 47c-50a. 「만일 선남자·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귀·코·혀·몸·의식의 六根의 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으로 六根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부모가 주신 눈으로써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수미산과 철위산을 모두 보고 그 밖의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태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보게 되느니라」

경전을 듣고 찬탄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그 아래쪽으로는 「藥王菩薩本事品」에
설해진 법화경의 12가지 이익을 표현한 것으로,²¹⁾ 높은 의자 위에 앉은 노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3면과 제4면 하단
에는 「藥王菩薩本事品」의 내용 가운데 약왕보살의 진신인 喜見菩薩이 연화좌
위에 앉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燒身供養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
오른쪽에는 2기의 보탑을 향해 공양하고 있는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장면은
「藥王菩薩本事品」 가운데 喜見菩薩의 보탑 공양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²²⁾

제6권의 도상에는 「囑累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3.6.2 故宮博物院本 제6권 판경변상화<그림 13>

向右 설법도에서 前卷들과 마찬가지로 대좌는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경물의 세부묘사 등이

-
- 20)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藥王菩薩本事品」, 54b-54c. 「만일 여인이 이 약왕보살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면 이번엔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후에는 다시는 받지 않으리라. 만약 여래가 열반한 뒤에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곧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보살대중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寶座 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 21)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藥王菩薩本事品, 54b.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한 연못이 목이 마른 사람 모두가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것처럼, 또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이 따스한 불을 얻어 되살아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벗은 이가 옷을 얻은 것처럼, 타국에 여행하는 장사꾼이 좋은 안내인을 얻은 것처럼, 캄캄한 밤에 등불을 얻은 것처럼, 아이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나무터에서 배를 만난 것처럼, 앓고 있을 때에 의사가 와준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처럼, 국민이 좋은 통치자를 얻은 것처럼, 무역하는 이가 평온한 바닷길을 발견한 것처럼, 햇불이 어둠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이와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체중생을 구제하느니라」
 - 22)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藥王菩薩本事品, 53c. 이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을 보고 매우 슬프고 괴로웠느니라.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진단향 나무를 쌓아서 부처님의 몸을 공양하여 사르고,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수습하여 팔만사천 탑을 쌓았느니라...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은 오히려 흠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팔만사천 탑 앞에서 백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워서 공양하였다」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여인의成佛장면에서 “여인이 「약왕보살분사품」을 듣고 믿은 공덕으로 다시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내용을 표현한 듯 연화좌 위에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徳川美術館本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6권에서는 이 환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1명의 공양인이 구름 속에 합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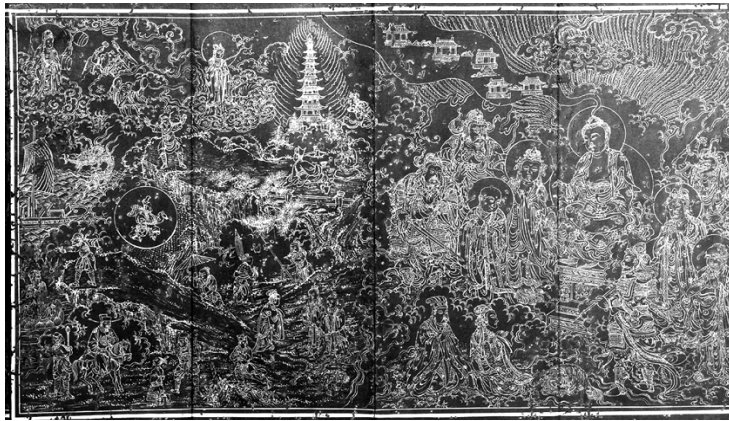


<그림 13>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제6권 變相畫

3.7 제7권 변상화

3.7.1 徳川美術館本 제7권 사경변상화<그림 14>

화면 오른쪽의 說法圖에서 釋迦如來는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내밀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文殊·普賢菩薩, 迦葉과 阿難, 四天王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2권 배치와 유사하다. 釋迦의 대좌 아래에는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2명의 聽聞衆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妙莊嚴王과 그의 부인인 淨德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日本 徳川美術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7권 變相畫

석가의 肉髻로부터 발한 광선속에는 5체의 가옥과 바위산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妙音菩薩品 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²³⁾ 석가의 머리 위에는 天蓋가 생략된 대신 구름사이에 연꽃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시 「妙音菩薩品」에 실해진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제4면 상단에도 「妙音菩薩品」의 내용이 도해된 듯 구름에 휩싸인 채 내려오고 있는 妙音菩薩과 그 오른쪽 아래에는 양손에 小鼓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²⁵⁾ 제3면 오른쪽 상단에는 妙音菩薩品」 가운데 妙音菩薩의 다보탑 공양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제4면 중앙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면서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7難救

23)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音菩薩品」, 55a.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大人相의 肉髻에서 광명을 놓고 또 미간의 白毫相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백팔만역 那由他, 恒河沙와 같은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24)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音菩薩品」, 55b. 「이에 묘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은 동요하지 않은 채 삼매에 들어 그 힘으로 耆闍崛山의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팔만사천이나 되는 보배 연꽃을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25)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音菩薩品, 55c. 「이때 묘음보살이 그 국토에서 없어져서 팔만사천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꽃을 비 내려 백천가지 하늘 음악이 연주하는 이가 없는데도 저절로 울렸습니다」

濟'의 내용이 도해되어 있다. '7難'이라는 것은 火難, 水難, 風難, 刀杖難, 羅刹難, 枷鎖難, 怨賊難의 7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풀려날 수 있다는 계송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제4면 상단의 묘음보살 옆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牛頭의 인물이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牛頭의 인물은 녀신으로 보이며²⁶⁾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3면과 제4면의 중간쯤에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가고 있는 1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묘음보살 아래쪽에는 大海 중에 배를 그려 넣어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風難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 오른쪽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수미산 봉우리에서 밀어도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허공에 떠있게 된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으며, 그 장면 왼쪽 대각선 아래로는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져서 굴러도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털끝 하나도 손상치 않는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제4면 하단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枷鎖難의 내용을 도해한 듯,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은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인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는 시자가 서있으며, 사형집행관의 앞쪽에는 양손을 결박당한 채 꿇어 앉아있는 인물이 있고, 그 옆에는 부서진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제3면 하단에는 호랑이에게 쫓기며 함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 의 계송 가운데 맹수의 재난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제3면의 칠보담 아래에는 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독약으로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해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2명의 인물 가운데 1명이 독약을 토해내고 있다. 제3면의 중앙에는 창을 든 인물과 우산을 든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怨賊難의 내용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제3면 하단에는 3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妙莊嚴王本事品」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가 바라문법에 깊이 집착해 있다는 어머니 淨德의 말을 듣고

26) 권희경, “高麗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7집 (2004. 6), 273. 論衡에서 보면 雷公은 천둥의 상징으로 雷公의 모습을 그릴 때는 북을 연이은 모습으로 첩첩이 쌓아 놓고 그렸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신통력을 보여 불교에 귀의케 했다는 묘장엄왕의 두 아들 淨藏과 淨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²⁷⁾

제3면의 七寶塔 옆에는 普賢菩薩이 앞에 코끼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 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普賢菩薩勸發品」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이 경전에서 普賢菩薩은 말세에 법화경을 수행한 자들을 수호할 것을 서원한 보살로 설해져 있다.

제7권의 도상에는 「陀羅尼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3.7.2 故宮博物院本 제7권 환경변상화<그림 15>

向右 설법도에서는 前卷과 마찬가지로 방향의 연화좌는 원형의 연화좌로 바뀌었으며 대좌의 거의 대부분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向左 설화도의 경우 주제내용의 배치나 인물의 수, 자세, 경물의 세부묘사 등이 德川美術館本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7권에서는 제4면 하단 좌측에 이 환경의 발원자로 추정되는 4명의 공양인이 등장하고 있어 제5권과 비슷하다.

이상과 같이 德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변상화의 도상을 경전과 대조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주제내용의 배치나 등장인물의 위치, 자세, 경물의 표현 등 모든 점에서 일치하여 동일본을 모본으로 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莊嚴王本事品」, 60a.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력을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청정하여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갈 듯 하느니라’ 이에 두 아들이 몸 위에서 물을 뺏고 몸 아래서 불을 뺏으며, 몸 아래서 물을 뺏고, 몸 위에서 불을 뺏었느니라」

28)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普賢菩薩勸發品, 61a-61b. 이 사람이 다니거나 섰거나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 때에 어금니 6개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 15>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제7권 變相畫

4. 變相畫의 樣式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徳川美術館本 사경은 紺紙에 金字로 書寫되었으며, 變相畫는 金泥의 線描로 그려져 있다.

이 寫經變相畫는 각 권의 卷頭に 총 4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각 권의 卷尾에는 韋馱天 도상이 등장한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상하좌우가 金泥의 太線-細線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는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고려사경 변상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寫經變相畫의 구성은 화면 오른쪽에는 釋迦說法圖, 화면 왼쪽에는 說話圖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화면구성은 宋代 환경변상화의 모티브에 영향을 받은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다만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과는 달리 徳川美術館本에서는 수미단이 생략되어 있다.

변상화의 양식분석은 설법도와 설화도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다.

4.1 說法圖

이 사경변상화는 화면 오른쪽의 說法圖에서 석가여래 좌우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그려지고, 그 아래쪽으로 向右에는 가섭, 向左에는 아난이 그려져 있어 일종의 釋迦五尊圖를 연상케 한다. 이들을 다시 사천왕이 에워싸고 外護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식도 고려사경 변상화 양식과는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는 구성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如來의 경우 높은 방형 혹은 원형의 연화대좌 위에 앉아 說法印의 手印을 취하고 있으며, 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닌다.

여래의 顏面은 半側面向으로 그려져 있으며, 얼굴 윤곽선과는 별도로 턱의 윤곽선을 그림으로써 이중 턱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이미 臺灣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에서도 보이고 고려사경으로는 忠惠王 復位元(1340)년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 이후 高麗後期 個人發願寫經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여래의 相好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썹은 鐵線描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처리하고, 눈의 표현은 點眼을 한 후 다시 아래쪽에 한 번 더 弧線을 그려 넣어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여래의 肉髻는 비교적 크고 높은 편인데, 호선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螺髮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 圓卷狀, 渦卷狀, 이중·삼중의 호선으로 나발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래는 通肩의 法衣를 걸치고 있으며, 가슴에는 ‘卍’자가 표시되어 있다. 법의에는 圓文이 그려져 있는데, 圓文 속에는 花文裝飾을 하고 있어 고려불화의 여래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여래의 머리 위쪽에 표현된 天蓋의 경우 고려사경 변상화에 비해 지나치게 작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제4권과 제7권 변상화에서는 天蓋가 飛雲文으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光背는 원형의 線描로 단순하게 두광과 신광을 표현하였으며 문양장식은 생략

되었다.

光明의 경우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 나와 좌우 두 갈래로 나뉘며, 放光의 경우 2조의 선과 波狀線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臺座는 대부분 方形臺石 위에 연화좌가 그려지고 있는데, 제3권 變相畫의 경우에만 圓形臺石 위에 연화좌가 표현되어 상이함을 보인다.

菩薩의 경우 합장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1권에서만 2구의 보살이 오른손에 연화좌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故宮博物院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광배는 여래와는 달리 원형의 두광만을 지닌다.

羅漢의 경우 얼굴의 모습과 합장한 자세, 가사의 표현 등에서 뚜렷한 개성은 보이지 않는다. 광배는 보살과 마찬가지로 두광만 지닌다.

四天王의 경우 모두 갑옷을 걸친 무장상으로 표현되는데 호법신으로서 권위를 갖춘 모습이다. 광배는 부분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나 火焰形의 두광을 지닌다.

聽聞衆의 경우 보관을 쓴 양식과 비구양식 2가지로 나타나며 권속들에 비해 작게 그려진다. 이러한 특징은 우왕 이전의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장식문양의 경우 雲文은 이중의 호선으로 연결하여 단순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涌雲文이 권속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화면 전체에 여백이 많은 편이며, 부분적으로 金泥의 點描로 처리하여 散花임을 암시하고 있다.

4.2 說話圖

세부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보면, 제1권의 경우 方便品 가운데 주악공양 장면에서 보이는 殿堂의 지붕형태가 中國적 瓦家の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내림마루의 경우도 위에서부터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다가 전각부분에서 넓게 퍼지는 형태

로 고려사경의 說話的 장면에서 보이는 지붕의 표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제2권의 경우 譬喩品 에 나오는 火宅의 처리에 있어서 집안 내부를 화염으로 가득 채워 담장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信解品」의 長者와 窮子の 비유에 등장하는 초옥은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3권의 경우 化城喩品 에 나오는 化城을 표현하는데 있어 성곽의 일부만을 그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다리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상징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을 혼용함으로써 설화의 장면이 한눈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고 얼마간의 혼란을 느끼게 한다.

제4권의 경우 「五百弟子授記品」의 장면은 상당히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이 사경의 제작자가 이 장면을 상당히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提婆達多品」의 내용 가운데 八世龍女の 成佛 장면도 여래에게 보주를 바친 龍女가 남자로 변했다가 이 남자의 머리 위쪽으로 표현된 구름을 타고 올라 成佛하여 보살행을 갖춘 모습까지 그리고 있어 교리에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권의 경우 「從地涌出品」 가운데 5구의 보살이 각각의 구름을 타고 마치 내려오는 모습처럼 표현된 장면은 같은 元代寫經인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사경변상화나 고려사경 변상화에서 10구의 보살이 1개의 커다란 구름을 타고 한꺼번에 용출하는 장면과는 달리 간략화된 느낌이 든다.

제6권의 경우 「如來神力品」 가운데 光明 속에 6체의 가옥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여래의 頭頂으로부터 뿜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사경 변상화와는 다른 모습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권의 경우, 제4면 상단의 오른쪽에서부터 아래의 화면으로 이어지면서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7難救濟」의 내용이 도해되어 있다. 牛頭의 인물이 북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뇌신을 비롯하여, 수미산의 벼랑에서 악인이 손을 뻗어 떨어뜨려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치면 허공에 떠있게 된다는 내용이 원형구획 속에 표현되어 있으며, 枷鎖難의 장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권위적으로 표현되는 등 주제선택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부묘사에 있어서 고려사경 변상화와는 상이한 양식적 특징

을 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7난구제에 대한 元代 사람들과 고려인들의 이념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卷의 설화도 하단부와 중앙의 여백부분에 표현된 雲文은 渦卷狀이 여러 겹 중첩된 형태로 표현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운문 덩어리 위에 호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어, 그 형상이 와문덩어리가 여러 개 뭉쳐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3개의 와문을 그리고 이중의 호선을 연결시킨 테두리로 장식하고 있으나 덩어리와 테두리 사이가 넓어 고려사경 변상화의 운문형식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徳川美術館本과 故宮博物院本 「妙法蓮華經」의 현상을 살펴 元代 寫經 및 版經의 체제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徳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와 故宮博物院本 판경변상화의 주제내용은 경전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철저히 비교 분석하였다.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은 같은 元代 寫經인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와 고려사경 변상화와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徳川美術館本の 제작연대를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7자로 사성되어 있어 같은 元代 寫經인 至元 28(1291)년에 제작된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紺紙金銀字 「大方廣佛華嚴經」 제71권·제72권·제73권·보현행원품(이하 京都博物館本이라고 칭함)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모본을 사용한 故宮博物院本 판경의 체제는 1면 4행이며 1행 12자로 판각되어 있어 비록 동일본을 모본으로 같은 시대에 제작된 경전이라 하더라도 사경과 판경은 체제에 있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화면 오른쪽의 說法圖에서 수미단의 표현이 생략되고 여래 앞에서 설법

을 듣고 있는 聽聞衆의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 古式의 유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元代寫經이나 고려사경과는 또 다른 특징으로 변상화의 의미에서 깨달음을 갈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이나 수행자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변상화의 세부묘사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제내용은 德川美術館本과 至正 丙戌(1346)년에 제작된 故宮博物院本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어 이 사경의 제작시기를 편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경 가운데는 충혜왕 복위 원(1340)년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와 가장 유사하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한다.

넷째, 변상화의 화풍은 도식화되었다기보다는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특징은 같은 元代寫經인 至順 元(1330)년에 제작된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분이나 京都博物館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元代寫經들은 모두 배경을 散花로 채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다섯째, 이 사경의 경우 각 권마다 卷尾에 갑옷을 입고 합장한 두 손에 寶劍을 들고 있는 韋馱天 도상이 등장하는데, 같은 元代寫經인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본의 경우에도 각 권마다 卷尾에 천부도상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故宮博物院本 환경변상화에는 위태천 도상이 생략되어 있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이 서로 상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생각해볼 때, 德川美術館本은 변상화의 표현수법에서 古式의 유형을 따르고 있지만 사경체제에 있어서는 京都博物館本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변상화의 화풍에서 보이는 회화적인 느낌은 元代寫經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경의 제작연대를 추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1346년 제작된 環境變상화와 주제 내용면에서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德川美術館本 사경변상화는 1330~13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權熹耕.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 제27집(2004. 6). 235-279.
- _____.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 제31집(2005. 9). 153-200.
- _____.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 김경호. 韓國의 寫經」. 서울: 도서출판 고륜, 2006.
- 김보형. “위태천 도상 연구: 고려·조선시대 사경화와 목판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 金鍾珉.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文明大.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의 한 考察-經變相圖의 研究(2).” 「韓國佛敎學」, 3(1977. 12). 125-151.
- 朴桃花. “高麗金銀泥寫經畫의 樣式考察.” 考古美術」, 184(1989. 12). 19-37.
- _____. “高麗後期 寫經變相圖의 樣式變遷.” 高麗, 영원한 美 . 서울: 호암미술관, 1993. 205-209.
- 박상국. 사경」. 서울: 대원사, 1990.
- 山本泰一. “見返し繪のある中國の紺紙金字法華經-徳川美術館藏.” 金鯪叢書 , 第八輯. 徳川黎明會. 870-901.
- 神田喜一郎. “元・至元二十八年の紺紙金銀泥書華嚴經に就いて.” 美術史 , 40號(昭和36年. 3月). 130-132.
- _____. “中國の裝飾經について.” 大和文華 , 第五十號(昭和44年. 4月). 1-7.
- 오가타 도모미. “平安時代 紺紙金字寫經 變相圖의 特質: 동아시아지역 작품과의 비교.” 「불교미술사학 . 제3집(2005. 10). 55-68.
- 張忠植. “法華變相考.” 「韓國佛敎學 . 3(1977. 12). 153-164.
- _____. 「한국사경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9)

조수진.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의 연구.” 書誌學研究, 제37집(2007. 9). 253-285.

_____. “妙法蓮華經」寫經變相畫의 比較 研究-東亞細亞 三國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黃壽永. “高麗寫經의 研究.” 『考古美術』. 180(1988. 12). 51-67.